

한 생각 돌리고 나니 ⑤

주부신행담



생성과 소멸

남들은 그림이라는 사람들을 예술가니 화가니 하면서 부러워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원시미술에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의 이야기는 한번도 같은 시대가 없었다.

그러기에 창작세계라는 것도 모른다. 객관적이어야 하면 서도 주관적이어야 하는 세계,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이어서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다. 유, 무형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가 생명의 기, 존재 가능한 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살아 있다는 것이 기가 있다(有)는 것이다. 그래서 기는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은 삶의 근원이다. 고로 '기=생명=살'이라는 통식을 생각해본다. 절대 비학이라 할 수 있다. 그 기의 원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自性) 혹은 본성(本性) 등

생·멸원리는 존재의 아름다움

아 하는 세계가 미술의 창작세계이다. 이적면 예술은 종교적 시각과 동일한 시절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구체적 세계와도 같은 세계, 부가 가치가 가장 높은 세계, 바로 영원한 존재 미학의 추구이다. 그것이 종교이자 예술이요 철학인 것이다. 동양적 사고로 그것을 본다면 '불' 사상이다. 속담에 '기 죽으면 싸움에서 죽는다'는 말이나 '기가 막혀 죽었다'는 말이 있

과도 통하는 것일 것이다. 생명 이전의 존재, 그 절대적인 존재의 장세를 알아내는 것이 곧 인간과 우주 만물의 근원을 밝혀내는 작업일 것이다. 나는 이것들에 대한 관심속에서 나의 예술의 속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존재는 영원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멸을 해야하는 원칙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생성과 소멸의 존재원리가 파악될 때 영감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승계일 <한국화가>

열심히 법문을 들으며 다니는 내 생활은 차라리 공부에 가까웠다. 법문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요점을 보며 그 뜻을 알고자 노력했고, 그런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부딪침은 차를 나를 수행케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었다.

법문과 요점속에는 처음 상상과는 다른 너무도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전에 막연히 느꼈던 '왜 나는 나인가?' 하는 의문도 나름대로 풀리기 시작했다. 독선적이라고 느꼈던 내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내 기대에 차지 않던 자식들하며 냉소적이고 절박하던 친구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결국은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내 스승이며 바람 한 점, 풀 한 포기, 별레 한 마리, 우주 전체가 스승 아님이 없음을 배우게 된 것이다.

자연적으로 내 태도는 전보다 눈에 필만큼 부드럽어졌고 그런 나를 대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얼굴에서도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화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함께라면 뭐 바뀌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경계가 주인공의 나뉠데 속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오랜 습관을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차와 열려한 부분이었던 생각보다 남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질 않았다. 마음공부를 한다는 구실이 발근하는 상질을 죽이곤 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라고 일러주었을 때 남편은 오히려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신은 그걸 고쳐야 돼'라고 공격하는 것이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잘못은 돌보지도 않고 남의 잘못된 눈에 보이



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다 "마음이 항상 봄이면 생활도 늘 봄입니다"

나'하는 마음으로 다시 남편의 잘못을 고집다 가는 다시 이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떠올라 말싸움을 멈추곤 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다고 내 앞에 순종적이기 보다는 반발하는 횡수가 많아졌고 심지어는 나를 비판하고 나서는 일까지도 찾아졌다. 자식이 상정이라는 말이 참으로 실감나기도 했다. 내가 처음 변하기 시작했을 무렵의 온화했던 가족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무리 처음부터

지 답이 떠오르질 않았다. 몸과 마음이 차를 지쳐가던 어느날, 우연히 아이들의 책상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아이의 일기장 속에는 독선적이고 원칙론적이며 자기 욕심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한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그 여자의 과욕과 이기 때문에 마음에 시꺼먼 영이 든 채 힘든 나날을 계속하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기장의 그 여자, 바로 나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우울해하고 가정에

역은 새 빛들은 잘 피어 있으니 숨아 지도 굶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려라! 'The stakes are driven in, and should be shaken,'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the ropes are made of munga grass, new and well-made, the cows will not be able to break them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내가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마저도 무시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

서 포근함을 느끼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내리는 존재는 늘 내 속에서나 착하고 올바른 인간이었을뿐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의 눈에조차도 인간미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 밖에 없었다. 내 크나큰 잘못을 바르게 인도해 줄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 자식이라는 짐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근본자리에 맡기고 다 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나의 습을 녹이기 위해 참된 마음으로 정진을 계속했다. 진정한 마음공부는 바로 이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의욕이 새차게 일었다. 처음 깨달았던 나를 속이는 깨달음이 아닌 진정한 제비심을 배우고 싶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장에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한 마음의 생활이 내 앞에 열렸다. 주위 사람들도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얼굴이 밝고 좋아했다고 기뻐해 주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몇십년동안 본 중에서 지금이 제일 편안해 보이고 예쁘니 사진을 찍어두자고까지 했다. 모든 것이 이 마음법의 도리를 알게 된 인연이라고 생각하니 한없는 고마움이 느껴졌다. 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이 항상 봄이면 생활도 늘 봄'이라는 것이다. 한 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향기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향기마저도 뛰어 넘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내기 있기까지 이끌어준 참나, 나의 주인공에 진실로 감사하며 이 글을 부처님전에 회향하고 싶다.

오계민 <서울 중계동>

◆ 'I have no cows, I have no calves, -so said Bhagavat, -I have no cows in calf and no heifers, and I have no bull as a lord over the cows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 'The stakes are driven in, and should be shaken,'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the ropes are made of munga grass, new and well-made, the cows will not be able to break them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 'Having, like a bull, rent the bonds ; having, like an elephant, broken through the galukki creeper,

I shall not again enter into a womb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Then at once a shower poured down, filling both sea and land. Hearing the sky raining, Dhaniya spoke thus : 스승이 답했다. 성난 황소같이 나는 고삐를 끊는다. 크게리처럼 뉘 새나는 덩굴줄을 짓밟으며 나는 두 번 다시 모태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려라!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땅과 바다가 모두 물에 잠겼다. 하늘이 루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야는 말했다. 'muga' 풀의 잎을 문지르면(차라리) 'creeper' 덩굴줄을, 가는 것(근중마리) 'womb' 자궁, 모태

한영우 기자

“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

GRAND FANTASIA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늘 사람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심대전문 직사 20여 년 간직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헌정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침실, 편안함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직사인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나라를 떠나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만불보전 10년 불사 회향

萬佛名號經 寫經精進大法會

10여 년 전 천막법당에서 시작한 만불전 불사가 佛子들의 信心과 願力으로 대중불교 현장인 생활불교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사 회향 10년을 목전에 두고 만불명호를 사경하고자 합니다. 만 부처님 전에 1불 3배의 참회를 하면서 정진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이루어지고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인류평화를 발원합니다.

입재 : 2539년 8월 15일(음 7.19)
회향 : 2539년 11월 22일(음 9.30)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서술포교당 九龍山 九龍寺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9-1 전화 022575-7766, 전승 022576-4503

老天 獎學金 案内

도선포교당 및 사찰에서 어린이회, 중·고등학교, 대불련 및 청년회의 지도배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인스님 100명을 대상으로 老天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대상: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지방승가대학 학인스님
- 제출서류: ① 승적증명서 1통
② 재학증명서 1통
③ 학교장 또는 활동하는 사찰 추천서 1통 (중앙승가대는 학장 추천서, 지방승가대는 강주님 추천서, 동국대는 정각원장 추천서)
- 1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법회활동 보고서 1통, 추천서 1통(단 승적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제외)

3. 조건: 학기별 50만원 또는 1백만원
4. 마감: 불기 2539년 8월 25일 *장학금 전달은 각 개인별로 송금합니다.

*老天은 율리중정여하 법호입니다.